

사명자의 입술을 통해
정녕코 이루는 역사,
큰 바위 얼굴

작성일: 2013년 7월 5일(월) AM 4:30
작성자: 주량별

(월명동 가이드 사명을 하면서 성자께서
사연 있는 곳들에 가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
다.
깊이 기도하면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하셔
서
이 날은 큰 바위 얼굴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.
큰 바위 얼굴의 사연을 깊이 읽으면서
“이 바위의 뜻을 아무도 몰랐지만, 성자께서는 알고
어릴 적부터 선생으로 하여금 돌을 캐 온다고 말하
게 하셨다”는 부분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.
이 돌의 깊은 사연과 이 돌을 통하여 섭리의 모든
생명들에게 선생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
고 간구 드렸을 때 성자께서 깊은 사연을 말씀해 주
셨습니다.)

성자의 말씀

나 성자가 내가 쓰는 사명자를 통해서
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여
그 뜻을 정녕코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.
내가 선생을 통해 큰 바위 얼굴을
월명동 마당에 놓을 거라 말했을 때
사람들은 어떻게 힘도 돈도 없는 어린애가
이런 엄청난 바위를 가져갈 수 있을까
소문내며 비웃었다.
선생도 그 때 나 성자가 그를 통해
말했던 것을 몰랐던 것이다.
그 때에 선생이 자기 사명을 알지 못한 채
내 몸이 될 자인지 알지 못하여
순수하게 말했던 것이다.

(아모스 3:7)
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
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
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.

그러나 나 성자가 예전부터

신부의 역사를 이루고자
선생을 택하고, 키우며,
내 사명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며
때가 되어 그 말씀대로 뜻이 이뤄지지 않았느냐.
은밀히 역사하는 나 성자를 깨달아라.
지금도 매주 마다 너희 선생을 통해
은밀히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.
선생을 통해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
반드시 이뤄질 것이다.
너희들의 귀에 듣기에 의심스러운 말이라도
반드시 때가 되어 내 몸을 통해
선포한 말씀을 이뤄 역사를 펼 것이다.
내가 내 육신 선생을 통해 은밀하게
이와 같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는지 아느냐.
섭리의 미래에 대하여
섭리사에 앞으로 올 생명들에 대하여
수없이 많은 비밀들을 선포했다.
너희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도
은밀히 말했는데
온전히 이루어진 후에야 이해 할 일들이
아직도 너무나 많다.
내가 이와 같이 내 사명자를 통해
은밀히 말하는 것들을
그 때에 맞게 정녕코 이룬다.
그러니 그를 믿고 따라가라!
은밀하게 내 몸을 통해 말한 것을 의심하지 말고
100% 믿고 기뻐하며 따라오노라.
그러면 내가 선생을 통해 이뤄질
내 찬란한 역사의
모든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.

지금도 내 육신 선생을 통해
“휴거는 각 사람마다 한 기간이다.
그 기간은 길지가 않다.
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짧다.
그러니 급히 행하여 이때를 놓치지 말아라”
애타게 외치는데 뒤에서 비웃고,
이해하지 못하여, 의심하여,
100% 이 말을 믿고 실천 안 하는 자들이 많다.
나 성자가 내 사명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여
때가 되면 그를 통해 말한 대로
정녕코 역사를 이를 성자이니 회개하고
속히 자기를 단장하여
300선에 올라갈 때까지 연단 받고

자기를 온전히 변화시켜라.
나 성자와 너희 선생이 있는 위치에
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 때다!
이 때,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때가 끝나면
내 사명자가 살아 있어도 소용이 없다.
자기의 때가 끝나면 점수가 나오고
그 점수대로 영원히 살게 된다.
내 사명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
다른 자들에게 휴거의 때의 기회가 갈 것이다.
그러니 즉시 그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
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
진정 100% 행하여라.
큰 바위 얼굴을 볼 때
진정 너희 선생에 대해서
깨닫기를 바란다.
인간의 차원으로서가 아니라
근본의 나 성자의 차원대로 깨닫기를 원한다.
그러니 너희들에게 내 선생을 통해
선생을 상징하는 바위를 준 것이다.
너희들의 눈에 보이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
나 성자를 상징하는 성자 바위의 쌓이 되는
큰 바위 얼굴을 준 것이다.
눈에 보이는 역사라도
깨닫지 못하면 소경이 아니냐.
그 사연을 들으면서도 눈에 보이면서도
진정 그를 깨닫지 못하면
유대인 같은 병어리이며 소경이 아니냐.
너희 선생을 깨닫는 만큼
너희의 휴거의 차원이 좌우되니
진정 성삼위 하나님, 성령님, 나 성자의 차원대로
선생을 깨닫도록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
깊은 기도로 내게 다가오너라.
내 몸인 월명동에서 깊이 기도하여
눈으로 보고, 귀로 그 사연들을 듣고
몸으로 겪고 실천하여 깨달아라.
너희 선생도 바로 이 곳 월명동에서 극히 연단 받고
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인간의 차원이 아닌
나 성자의 근본의 차원으로
이 시대의 온전한 진리를 깨달았다.
선생을 깨닫고자 이곳에 오는 자들에게
나 성자와 성령 어머니가
더 큰 은혜와 깨달음을 줄 것이다.
연단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.
연단을 받고

마음과 몸을 강하게 만들어야
내가 쓸 수 있는 것이니
너희의 표상자인
선생을 본받고 그대로 행하여라.
너희들도 그와 같이
담대한 마음을 먹고 행하면 된다.

사연만 듣고 은혜 받는 차원으로
만족하지 말아라.
그 은혜가 금방 식는다.
선생과 똑같이 행하고 연단 받으면
자기의 것이 되어
자기의 뼈와 살이 되니
그 은혜가 충만하여
영원히 식지 않는다.
큰 바위 얼굴의 가치를 진정 깨닫고
너희 선생에 대해 더 깊이 깨닫고
그와 같이 행하여 그를 중시하여
그 말을 생명시하여 살기를 바란다.
큰 얼굴 바위에 대하여
깊이 깨우쳐 준 나 성자니라.